



숨을 쉬듯, 쉽 없이, 의식의 층만뿐 아니라 빈사상태에서도 해야만 하는 것, 혹은 하고 있는 것. 존재와 다름없는, 존재를 증명해 보이고, 존재를 지지해 주며, 존재를 지탱해 주고, 존재를 불꽃처럼 눈부시게 하는, 그러나 자칫 한순간 존재를 전복시켜버리기도 하는 것. 당신에게도 그런 것이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는.

시인이든, 춤이든, 그림이든, 소리가든, 집을 짓는 일이든 간에 ‘그것’을 업으로, 형벌로 평생 떠안고 살아가는 예술가들의 삶을 나는 오랫동안 동경해 왔다.

강석경의 《일하는 예술가들》은 ‘그것’에 한평생을 바치고 살아간 예술가들의 삶과 철학, 정신을 통해 예술가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책이다.

화가 장욱진, 가야금연주가 황병기, 건축가 김중업, 시인 김종삼, 화가 유명국, 가곡여창歌曲女唱 김월화, 전통무용가 이매방, 토우제작가 윤경열, 조각가 최종태, 작곡가 강석희, 연극연출가 유덕형, 조각가 문신, 작곡가 백병동, 화가 박생광. 그들 중에는 천상의 부름을 받고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도 있다. 시인 김종삼과 화가 박생광은 1986년 이 책이 출간되기 오래 전 이미 천상으로 떠났다. 화가 장욱진과 건축가 김중업, 화가 유명국, 조각가 문신도 그들이 남긴 작품으로만 기억해야 한다.

강석경의 표현을 빌자면 ‘어린아이 같은 죄 없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 장욱진은 오십 평생을 술과 그림밖에 모르고 살았다. 가야금연주가 황병기는 천사백 년 전 우륵의 녀을 이어받아 ‘음’ 하나로 며칠을 보낸다. 화가 유명국은 “화면에서 한평생 나를 추구했다. 그림으로 나를 보이는” 것을. “귀한 것을 내 입에 담아 풀어나가는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성음을 토하는 이가 가곡여창 김월화다. 시인 김종삼은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따분하고 심심해서” 시를 썼다. 토우제작가 윤경열은 흙으로 풍속을 고집스럽게 지키며 신라의 정신을 지켜나가려 한다. 조각가 최종태는 예술의 사회참여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망치를 들고 생각해야” 된다고 말한

오랜 세월 업으로, 형벌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

다. 화가 박생광은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아서” 그림을 그리는 그림에 미친 그림쟁이다. 작곡가 백병동은 “심금을 울리는 진혼곡을 쓰는 것”이 단 하나 이루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조각가 문신은 말한다. “견딘다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예술가들에게 던지는 강석경의 질문은 깊고 날카롭다.

건축가 김중업은 건축가로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에게 ‘꿈을 나누어 주’는 것일 거라고 말한다. 강석경은 ‘나눈다’는 말에 건축가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을 꺼낸다. “예술은 어쩔 수 없이 귀족적인 것이라 합니다. 예술가의 독특한 개성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위를 채워주지 않으므로 무용한 것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건축은 일단 구체적인 쓸모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죠. 그런 면에서 건축이 보다 보편화되고 비귀족적인 것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건축가는 아직 서민과의 거리가 먼데 서민과의 괴리를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술가들의 대답은 예술과 자신, 세상에 솔직하다.

“동성이건 이성이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아름다운 것이냐. 우정이 지나치면 동성애도 할 수 있는 거제. 정이 가니까 서로 터치하지. 말이야 노골적으로 해야제. 호모끼가 있으니까 내가 춤추는 거여. 끼 없이 무슨 예술을 한디야? 그걸 알아야 사람도 멋이 있제. 법과도 그걸 알아야 이해도 있고 인정도 가져.” 전통 무용가 이매방의 말이다.

열네 명의 예술가들은 업처럼 천생재주를 타고났다. 화가 장욱진은 어려서 밤새 다락방에 숨어 그림을 그릴 정도로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좋아한다는 것은 재주가 있다는 것, 좋아하는 것보다 더한 재주가 있을까. 전통무용가 이매방은 걸음마를 배울 세 살 때부터 춤을 흥내낼 정도로 타고난 춤꾼이었다. 어디 그들 뿐인가.

가곡여창歌曲女唱 김월화는 오백 년 만에 하나 나온다는 타고난 목소리를 가졌고, 화가 박생광은 농사꾼집안에서 자랐지만 어려서 그날의 일기를 그림으로 그릴 정도로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예술가들의 천생재주에 감탄하면서도, 그들을 묶고 있는 것이 업처럼 부여받은 재주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한평생을 ‘그것’ 밖에 모르고 살았다. ‘그것’에 스스로를 가두고 ‘그것’에 미치고 미쳐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았다. 가족과 사회와 자신의 내면과의 소통도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만 나눌 줄 알았다.

‘그것’ 밖에 모르고 살아온 그들은 ‘그것’ 때문에 초조하고 고통스럽고 공포스럽고 불안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독하고 행복했다. 그들은 아름다움과 추함조차도 ‘그것’을 통해서 느꼈을 것이다.

“혼탁한 시대일수록 무용한 예술가의 존재가 필요하다. 자연에서 멀어진 인간에게 본연을 보여주고 혼의 갈증을 풀어주기에 이것이야말로 예술의 힘일 것이다.” 작가의 말에서 밝혔듯 강석경은 이 책을 통해 예술의 힘을, 예술가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모른다. “위대한 예술은 사람을 개종시키”고 “고통 속에서도 삶을 찬미하도록” 해준다고 그녀가 믿고 있듯이, 예술과 예술가의 힘을 빌려 물질적인 유용의 가치만을 좇는 이들과 세태를 개종하고자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 책은 내게 단지 예술과 예술가의 힘에 감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 그 어떤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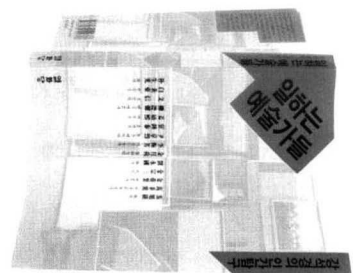
예술가란 결국에는 쉽 없이, 견디고 견디며, 오랜 세월 업으로, 형벌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는 것. 열네 명의 예술가들이 내게 감동적으로 깨우쳐준 사실이다.

나는 다시 묻는다. 숨을 쉬듯, 쉽 없이, 하고 있는, 해야만 하는 것이 있는가.

그러니 견디고 견디며 쉽 없이 돌을 쪼는 당신도,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는 당신도,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는 당신도 예술가다. 그러니 쉽 없이 견디고 견디는 우리는 모두 예술가다. **강석경**

이 글을 쓴 김숨은

1997년 대전일보 신춘문예, 1998년 <문학동네> 동계문예공모로 등단했다. <느림에 대하여> <중세의 시간> <투견> <새> <제8전시실> 등을 발표했다.



《일하는 예술가들》
강석경 지음 | 열화당 | 270쪽 | 값 6,000원